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역량 증진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이 영 미* · 장 근 주**

변화하는 지식기반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교육은 역량교육으로 기대 할 수 있으며, 현 사회에서 역량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발 등의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제안하고자 교과 역량 증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음악교과의 역량 강화에 적합한 학습 및 평가 개발 및 실행에 요구되는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역량 증진에 관한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국 100개 학교의 초·중학교 음악교사와 학생 그리고 음악교육전문가인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내용 중 교수학습 및 평가 실행 방향에 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될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구성 및 평가 방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교과 역량 증진, 교수학습 및 평가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
2. 주요 개정 내용 비교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2. 설문지 개발 방법
3. 분석 방법

IV. 결과 해석 및 논의

1. 결과 해석
2. 논의

V. 요약 및 제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cecilial@kice.re.kr) / 교신저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kjchang@kice.re.kr)

I. 서론

지식 기반 사회에서 다변화하고 글로벌화 한 시대에 대비하여 교육은 범교과적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교과와 특성에 적합한 교과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지식기반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교육은 역량교육으로 기대 할 수 있으며, 역량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발 등의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을 제안하고자 교과 역량 증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음악교과와 역량 강화에 적합한 학습 및 평가 개발 및 실행에 요구되는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따라 음악교과와 역량 강화에 적합한 학습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교과 역량에 기반을 둔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¹⁾이 9월에 고시되어 확정고시(교육부, 2015)한 교육과정의 음악교과 내용에 따라 교수학습 및 평가 개발 및 실행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초·중학교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¹⁾

1. 음악과 교육과정 연구 동향

2009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음악과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음악과의 목표, 학교급별 목표가 제시되었다(이광우 외, 2009; 이경언 외, 2010). 이 연구들에서는 음악 교과에서 기대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진의남 외, 2014b). 음악교과와 목표는 학습활동과 내용 영역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천적인 현장수업에서 창의성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경험의 속성과 가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 실

1) 본 장의 내용 중 일부는 (진의남 외, 2015).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15-8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행되도록 권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음악 교과의 내용 영역과 핵심역량, 하위 역량, 사고 능력, 주요 학습 내용을 관련짓는 연구가 있었다(이경언 외,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이경언 외, 2010: 118-179)에서는 음악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핵심역량과 관련지어 학년군별 목표에 핵심역량의 영역 및 요소를 반영(이경언 외, 2010: 150)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이경언, 2011)에서는 음악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의 의미와 역량의 영역에서 특정 영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논의의 출발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역량 기반 교과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보다는 학교와 교사 차원에서 우리나라 음악 교과 역량의 의미와 요소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이경언, 2011)가 있었다. 따라서 역량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방향은 음악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교과 역량의 의미를 규정하고 교과 역량의 의미에 적합하도록 일반적 속성에 따라 음악 교과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경언, 2011). 송주현(2011)의 연구에서도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적용 시 총론 차원의 일반적 역량을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였으며, 음악 교과 특수 역량을 설계하는 역량 중심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절차상의 원칙과 과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역할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음악과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들과 학생간의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교수·학습 및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평가 방법에 관하여 교사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었다.

2. 주요 개정 내용 비교

1)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교육과정 개정 1차부터 9차까지 교육과정 문서 내용에 나타나는 음악 교과 역량을 분석해 보면 역량보다는 목표 지향적이었으며 인간상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과 교육목표는 1차와 2차 교육과정에서 애국 애족 정신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5차와 6차부터는 포괄적 음악교육이 실현되어 6차 개정부터 음악성 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총괄목표에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2015개정에서 음악 감성 역량 개발과 연계 할 수 있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 교과 목표는 전인적 성장, 소통과 배려, 세계 시민 양성에 두고 있어 문화적 소양의 역량보다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언 외(2010: 139)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육 목적을 역량과 관련지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음악교육 목적은 음악교육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이에 따라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또한 2015 개정에서는 음악 교과 교육의 성격과 목적에 적합한 교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요구하였다. 지식과 정보의 폭증 및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대표되는 21세기의 변화된 삶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축적하는 학습보다, 활용을 강조하여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진의남 외, 2014b)했던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c)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 총론에 명시한 역량 함양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임을 유념하여 교과 공통의 핵심역량과 교과 역량(교과별 핵심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지침을 마련(이경언, 2015: 141-174, 143)하였다.

2) 교과 역량의 의미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는(교육부, 2015b: 3) 교과 내용체계를 개발하였다.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과 역량 함양에 역점을 두고 교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b)내용을 확정하여,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으로 음악 교과 특성을 반영한 교과 역량을 고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b: 3)에서 음악 교과 특성에 적합한 6개 음악 교과 역량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음악적 감성 역량’은 음악적 감수성을 스스로 계발할 수 있는 성찰의 과정에서 공감하는 내면적인 역량이다. 음악 감성은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고(교육부, 2015b: 3) 음악의 미를 지각하고 다원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학습자의 내면에 계발되는 역량이다.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은 창의적 사고로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활용하고 재구성하는 융합사고에서 비롯된다. 음악적 감성 역량과 창의·융합 사고 역량이

내적인 역량이라 한다면, ‘음악적 소통 역량’은 외적으로 표출하는 표현력이라 할 수 있다. ‘음악적 소통 역량’은 자신의 내면을 소리로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의 음악적 상징이나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행위로 표현하는 음향적 현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 음악적 소통은 시작될 수 있다. 이때 음향적인 소통과 조정이 가능하며 상호간에 존중하고 조절하는 하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음악적 소통 역량과 같이 상호 간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고 환경의식과 같은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다(교육부, 2015b: 3). 따라서 내적인 성숙을 거쳐 표출되는 음악적 감성 역량과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소통 역량과 문화적 공동체 역량 상호 간에 연계된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음악정보처리 역량’의 역할은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분류하여 평가하고, 조직하여 자료와 정보에 내재된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교육부, 2015b: 3)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음악정보처리 역량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역량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타 역량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음악정보처리 과정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관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음악적 자아를 스스로 발견하여 풍부한 음악성을 함양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²⁾

1. 조사 대상

2015 개정 시안 개발 과정 중 교과 역량에 대한 의견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초등학교(5-6학년군) 및 중학교 교사와 학

2) 본 장의 내용 중 일부는(진익남 외, 2015).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15-8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생 그리고 전문가(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와 대학교수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음악과 핵심역량 증진 관련 설문조사 참여 현황(교사, 교수)

변 인		빈도	비율(%)
소재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56	37.8
	중소도시	56	37.8
	군·읍·면	36	24.3
경 력	5년 이하	50	33.8
	6년 이상-10년 이하	24	16.2
	11년 이상-20년 이하	41	27.7
	21년 이상	33	22.3
소 속	초등학교	80	54.1
	중학교	52	35.1
	대학교	16	10.8
전체		148	100.0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급에 따른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일부 문항에서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무응답은 전체 응답 수에서 제외하였다. 학생 설문은 교사 및 교수 설문 문항 중 일부와 연계되므로 해당 문항의 결과 분석 시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핵심역량 증진 관련 교과 교육과정 설문조사 참여 참여 현황(학생)

사례 수(%)

변 인			빈도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5학년	375	48.7
		6학년	395	51.3
	중학교	2학년	348	49.5
		3학년	355	50.5
전 체			1,473	100

학생 설문은 설문 응답이 비교적 용이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초·중학교 각각 100개교씩 학교별로 4명에게 설문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음악과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역량증진에 관한 인식을 초등 5-6학년군, 중등 1-3학년군(2·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였다. 초등음악교과 전문가와 중등음악교과 전문가 그리고 음악교육전문직 각 1명 총3명에게 설문문항 내용에 관한 타당화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문항분석 내용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음악교과 역량 증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이러한 시기상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고시된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용어에 따라 결과를 해석하였다.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교과역량에 기반 한 2015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교과역량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실행 방안에 관한 의견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중학교 2·3학년 학생, 전문가(대학교 교수포함)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학생용은 학교 단위의 실시 편의성을 고려하여 우편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인식조사를 위해 음악과 교육과정의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설문지의 설문 필요성, 설문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 명확성 등,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와 설문 결과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진의 자체 검토, 전문가 자문 검토 및 테스트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4. 설문지 개발 방법

설문 조사를 위한 검사 도구는 전체 13-16문항으로 선다형 다중응답은 기술통계중 빈도,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선다형·라이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검사 도구를 <표 3>과 같이 개발하였다.

<표 3> 설문조사 문항개발 및 결과 측정방법(교사, 전문가)

변인	문항 내용	응답유형	측정방법	
배경 (1~4번)	· 성별/교직 경력/전공 영역/담당 과목 / 설문 교과(초등학교)/담당 교과(중학 교)/학교 규모/학교소재지	선다형 (4문항)	평균, 표준편차/ 동질성 및 상이점(χ^2)	
교 사 용 · 전 문 가 용	교과 역량 인식 (1~4번)	· 역량 증진의 인식 및 필요성 · 선정된 교과역량별 현재 교육 중요도 · 교과역량의 실현 정도 · 교과역량에 기반 한 교과 교육	선다형 (2문항) 라이커트척도 (2문항) 총 4~5문항	평균, 표준편차/ 동질성 및 상이점(χ^2) 빈도
	교과 역량 증진 방안 (5~ 10번)	· 교과역량 증진을 위해 교과 교육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 - 수업의 주안점 및 중요도 -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구성 방향 - 학습내용 또는 제재의 선호도 -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	선다형 (3~5문항)	평균, 표준편차/ 동질성 및 상이점(χ^2)
	교과 역량 실행 지원 (11~ 12번)	· 교과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 교과역량 증진을 위한 수업 지원 · 교과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라이커트척도 (1~2문항)	평균, 표준편차/ 동질성 및 상이점(χ^2) 빈도
전체 13~16문항				

<표 4> 설문조사 문항개발 및 결과 측정방법(학생)

변인	문항 내용	응답유형	측정방법	
배경 (1~4번)	· 성별/학년(초등학교·중학교)/학교 규모/ 학교소재지	선다형 (4문항)	평균, 표준편차/ 동질성 및 상이점(χ^2)	
학 생 용	교과 역량 인식 (1~4번)	· 역량 증진의 인식 및 필요성 · 선정된 교과역량별 현재 교육 중요도 · 교과역량의 실현 정도 · 교과역량에 기반 한 교과 교육	선다형 (2문항) 라이커트척도 (2문항) 총 4~5문항	평균, 표준편차/ 동질성 및 상이점(χ^2) 빈도
	전체 8~9문항			

5. 분석 방법

교과별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응답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1,600명 관련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전반적인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 및 전문가, 학교 급에 따른 역량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F-검증, χ^2)하였다. 이에 5점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은 요인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소속 학교 급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χ^2) 측정하였다. 그리고 1개의 기타 문항의 경우 범주화한 질적 해석의 경우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소재지, 경력, 소속 등의 배경 변인별로 교차 분석을 하였으나 소재지나 경력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급에 따라 일부 문항에서 약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 급에 따른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에만 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결과 해석 및 논의³⁾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으로 음악 교과 특성을 반영하여 고시(교육부, 2015b) 확정한 음악 교과 역량 용어로 용어 통일하여 해석하였다.

1. 결과 해석

1)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인식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교과 역량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음악적 감성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3) 본 장의 내용 중 일부는(진익남 외, 2015).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C 2015-8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인식하고 있었다. 음악 교과 역량으로 제시된 6가지 역량 중 음악 수업을 통해 기르고 싶은 능력으로 초등학교(5-6학년군)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 중학생들은 ‘음악적 감성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음악 교과 역량의 중요도를 인식하는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관리 역량’에 대하여 초등학교(5-6학년군)학생(1순위)들은 다른 역량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초등 교사는 5순위로, 대학교수들은 6순위로 중요도를 인식하였다. ‘음악적 감성 역량’은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을 제외한 초·중학교 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중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교과 역량으로 인식하였다. 초·중학교 교사들과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들은 교과 역량의 중요한 관점에서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으며, 교과 역량 중요도 순위는 초등 교사의 경우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순으로 중요한 정도를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서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순으로 교과 역량의 중요한 정도를 인식하였다.

중학교 교사는 ‘음악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순으로 중요한 정도를 인식하였고, 중학생들은 ‘음악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순으로 중요도 3순위까지는 교사와 인식 정도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의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순위는 대학교수들의 경우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보편적이($SD=772$)였으나 초등 교사들의 경우 인식의 차이($SD=1.137$)가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자 전체의 의미한 차이($\chi^2=20.638$, $P<.01$)는 있으나, 중학교 교사의 경우($SD=.958$)(부록 1 참고)도 교과 역량에 대한 교육자들의 인식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표 5> 학교 급별 유의미한 음악 교과 역량 실현 정도(교사, 교수)

빈도(%)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χ^2
초 교사	19(23.8%)	22(27.5%)	39(48.8%)	80(100.0%)	20.638**, df=4
중 교사	17(32.7%)	22(42.3%)	13(25.0%)	52(100.0%)	
교수	1(6.3%)	1(6.3%)	14(87.5%)	16(100.0%)	
전체	37(25.0%)	45(30.4%)	66(44.6%)	148(100.0%)	

* $P<.05$, ** $P<.01$

<표 6>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중요도(전체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수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	음악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2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3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4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5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6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 교과 역량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교과 역량 실현 정도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과 학생 모두 음악 교과 역량 6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음악 수업에서의 실현 정도는 중요도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실현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음악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은 음악 교과 역량 6개가 현재 음악 수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대체로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대학교수들은 ‘문화적 공동체 역량’과 ‘음악정보처리 역량’에 대해서 각각 56.3%, 62.5%로 ‘보통이다’에 응답하여 전문가들의 의식에서는 교과 역량 실현에 대한 확신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중학교 교사, 대학교수들은 현재 음악 수업에서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의 순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음악 수업에서 음악적 감성 역량 계발이나 음악적 소통 역량 그리고 문화적 공동체 역량 모두 매우 높게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에 비해 학생들은 현재 음악 수업에서 6가지 역량의 실현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중학생 전체로 보면, 음악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의 실

현 정도를 가장 높게 보았고, 그 다음으로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의 순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역량실현에 관한 인식 순위는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과 중학생의 전체응답의 편차를 고려할 때 음악적 감성(SD=.544)은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으나 ‘자기관리 역량(SD=.967)’은 학생들이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 24.3%의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인식과 중학교 학생 27.5%의 교과 역량으로서 음악적 감성에 대한 인식 간의 차이는 유의미($\chi^2=18.754$, $P<.01$)(부록 4. 참고)하다.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들은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모두 실현의 정도를 매우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중학생들은 ‘음악적 감성 역량’의 실현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과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그리고 ‘음악정보처리 역량’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교(5-6학년군) 학교 음악 수업은 저학년에서부터 즐거운 생활에서와 같이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이 실현되고 있어서, 타 교과 내용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교과 역량 실현이 쉬운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중학교 음악 교사에게는 학습에서 교과 역량의 개념이 음악 교과 내용의 특성과 거리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음악 교과 역량의 실현 정도(전체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수
	교사	학생	교사	학생	
1	음악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2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3	문화적 공동체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4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5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6	자기관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표 7>의 전체 비교를 고려하면 현재 음악 수업에서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의 순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음악 교육을 통해 초보자의 연주 연습에서 자기 효능감과 음악적 자기 조절 능력과 같은 자기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모두 음악 교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량에 기반 한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방안 연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활동과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요구하므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악 수업 속에서 음악 교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초·중학교 교사 모두 ‘시설·교구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초·중학생들은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하는 음악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업 방향의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해 동기 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음악 교과 역량 증진 방안

초·중학교 교사들은 음악 교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음악 수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역량에 기반 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구현’, ‘역량을 반영한 자료 제작 및 활용’, ‘역량 중심의 내용 재구성’에 대해서 응답이 일치하였다. ‘교과 역량에 기반 한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방안 연수’에 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전체 평균을 고려하였을 때, 중학교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과 역량에 기반 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에 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교사의 요구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음악 교과 역량별로 각각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음악 학습 활동에 대해 초·중학교 교사, 대학교수들이 자유롭게 적은 응답은 모두 상이하였으나 가장 일치되는 것을 중심으로 <표 8>에 정리한다.

<표 8> 음악 교과 역량 의 실현 정도(전체 비교)

역 량	적절한 학습 활동
자기관리 역량	악기를 학습하여 연주, 음악 감상, 음악회 포트폴리오 만들기
문화적 공동체 역량	연주회 발표 준비과정 및 연주, 다른 문화 음악 감상, 세계 여러 나라 문화 음악 조사
음악적 소통 역량	연주회 발표 준비과정 및 연주, 합창, 합주, 감상을 통한 음악적 소통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창작하기, 음악극 만들기, 실생활과 연계한 음악활동
음악정보처리 역량	매체를 활용한 창작, 음악요소 찾기, 음악과 관련된 주제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음악적 감성 역량	연주회 발표 준비과정 및 연주, 음악작품 해석 및 감상, 음악회 실태 감상

음악 교과 역량별로 각각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초·중학교 교사, 대학교수들의 응답은 순위가 모두 달랐으나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3순위 안에 제시된 것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음악 교과 역량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전체)

역 량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자기관리 역량	체험학습, 반응 중심 학습, 역할 놀이
문화적 공동체 역량	협동학습, 체험학습, 프로젝트학습
음악적 소통 역량	협동학습, 역할놀이, 토의·토론학습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자기주도학습
음악정보처리 역량	ICT활용, 프로젝트학습, 탐구학습
음악적 감성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통합·융합학습, 프로젝트학습

음악과 역량 증진에 적절한 교수·학습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는 프로젝트학습, 중학교 교사는 협동학습, 대학교수들은 체험학습을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였으며, 음악적 소통 역량 함양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는 반응중심학습, 중학교 교사는 협동학습 그리고 대학교수들은 토의·토론 학습으로 각자 다른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음악적 감성 역량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프로젝트학습, 중학교 교사는 창의적 문제해결, 그리고 대학교수들은 통합·융합학습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여 개정 교육과정 학습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분산되어 나타났다. 자기관리 역량은 체험학습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정보처리 역량도 초등학교 교사는 프로젝트학습, 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는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학습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기르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경우 프로젝트학습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대학교수들은 자기 주도 학습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프로젝트학습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 교과 역량별로 각각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 초·중학교 교사, 대학교수들의 응답은 순위가 모두 달랐으나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3순위 안에 제시된 것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음악 교과 역량에 적절한 평가 방법(전체)

역 량	적절한 평가 방법
자기관리 역량	감상문·비평문, 실기평가, 자기평가
문화적 공동체 역량	모둠평가, 동료평가, 관찰평가
음악적 소통 역량	동료평가, 관찰평가, 모둠평가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음악정보처리 역량	활동지법,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음악적 감성 역량	포트폴리오, 관찰평가, 활동지법

음악 교과 6가지 교과 역량을 평가 방법에 관한 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모두 ‘감상문이나 비평문’의 평가 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적 공동체 역량은 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의 생각이 ‘모둠평가’ 방법으로 일치하였고, 음악적 소통 역량은 ‘동료평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초·중학교 교사들의 생각이 일치하였다.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은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자기평가’가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음악정보처리 역량이나 음악적 감성 역량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포트폴리오, 중학교 교사의 경우 활동지법 그리고 대학교수의 경우 관찰평가로 소속 학교 급에 따라 여러 평가 방법이 일정하게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중학교 학교 급에 따라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에 따라 평가방법의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 및 결과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교사와 학생간의 의견 비교

음악 수업을 통해 기르고 싶은 교과 역량 1 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학생의 경우 음악 수업에서 우선적으로 함양하고자 하는 교과 역량으로 초·중등학생 전체중 약 30.3%가 ‘자기 관리 역량(음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이었으며, 다음으로 22.4%가 ‘음악적 감성 역량(다양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가치에 대해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 17.2%는 ‘음악적 소통 역량(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 11.3%가 ‘문화적 공동체 역량(우리의 전통 음악과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음악수업을 통해 요구되는 교과 역량으로 음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30.3%)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초·중학생이 음악수업을 통해 기르고 싶은 능력

빈도(%)

자기관리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정보 처리 역량	음악적 감성 역량	전체
445(30.3)	166(11.3)	253(17.2)	164(11.2)	111(7.6)	328(22.4)	1,467(100)

교사가 인식하는 음악 교과에서 핵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부록 3]과 같다. 설문 조사 결과, 교사는 ‘음악적 감성 역량(M=4.61)’, ‘음악적 소통 역량(M=4.52)’, ‘문화적 공동체 역량(M=4.31)’,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역량(M=4.22)’ 순으로 핵심역량의 중요도를 응답하여 교사의 약 51.6% 정도가 ‘음악적 감성 역량(SD=.544)’, ‘음악적 소통 역량(SD=.581)’, ‘문화적 공동체 역량(SD=.711)’,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SD=.787)’을 매우 중요한 교과 역량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음악정보처리 역량’의 경우 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 정도가 다소 낮은 응답을 보였다. 즉 교사들은 ‘음악정보처리 역량’은 다른 핵심역량에 비해 음

악 수업에서 교과역량으로 우선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 음악교과에서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과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는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교사의 음악교과 핵심역량 중요성 인식

빈도(%)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기관리 역량	1(0.7)	6(4.3)	18(12.9)	74(52.9)	41(29.3)	140 (100.0)	3.99	.967
문화적 공동체 역량	-	1(0.7)	14(10.0)	63(45.0)	62(44.3)	140 (100.0)	4.31	.711
음악적 소통 역량	-	-	6(4.3)	56(40.0)	78(55.7)	140 (100.0)	4.52	.581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	1(0.7)	25(17.9)	56(40.0)	58(41.4)	140 (100.0)	4.22	.787
음악정보처리 역량	-	4(2.9)	32(22.9)	77(55.0)	27(19.3)	140 (100.0)	3.88	.818
음악적 감성 역량	-	-	4(2.9)	46(32.9)	90(64.3)	140 (100.0)	4.61	.544

학생이 인식하는 음악수업에서 핵심역량이 어느 정도 길러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음악 수업에서 교과 역량의 실현 여부에 대한 학생의 응답 결과로 ‘음악적 감성 역량(M=4.01, SD=.897)’, ‘자기관리 역량(M=3.93, SD=.824)’, ‘문화적 공동체 역량(M=3.92, SD=.846)’순으로 나타나 교과 수업에서 핵심역량의 실현 여부에 응답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긍정,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에 대한 응답도 ‘음악적 감성 역량(M=4.01, SD=.897)’, ‘자기관리 역량(M=3.93, SD=.824)’, ‘문화적 공동체 역량(M=3.92, SD=.84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 음악 교과에서 기대하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증진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과 학생들의 응답 결과에는 상호 견해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3> 학생이 수업에서 길러진 교과 능력

빈도(%)

구 분	전혀 길러지지 않는다	잘 길러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잘 길러진다	매우 잘 길러진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기관리 역량	7(0.5)	45(3.0)	377(25.5)	658(44.6)	389(26.4)	1,476 (100.0)	3.93	.824
문화적 공동체 역량	5(0.3)	64(4.3)	367(24.9)	643(43.6)	396(26.8)	1,475 (100.0)	3.92	.846
음악적 소통 역량	11(0.7)	73(4.9)	411(27.9)	584(39.6)	396(26.8)	1,475 (100.0)	3.87	.892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9(0.6)	72(4.9)	423(28.7)	590(40.1)	378(25.7)	1,472 (100.0)	3.85	.880
음악정보처 리역량	10(0.7)	88(6.0)	445(30.2)	566(38.4)	364(24.7)	1,473 (100.0)	3.81	.901
음악적 감성 역량	13(0.9)	64(4.3)	315(21.4)	584(39.7)	496(33.7)	1,472 (100.0)	4.01	.897

초·중학교 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교과역량의 실현 여부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견이 ‘음악적 감성 역량(M=3.94, SD=.803, 70.7%)’, ‘음악적 소통 역량(M=3.89, SD=.778, 70.7%)’, ‘문화적 공동체 역량(M=3.77, SD=.817, 65.8%)’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수업에서 핵심역량의 실현 여부에 응답자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긍정, 부정도 아닌 ‘보통’에 대한 응답도 ‘음악적 감성 역량(N=37, SD=.803, 26.4%)’, ‘음악적 소통 역량(N=36, SD=.778, 25.7%)’, ‘문화적 공동체 역량(N=39, SD=.817, 27.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음악교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역량의 실현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음악적 감성 역량(M=3.94, SD=.803, 70.7%)’)과 학생들의 응답(‘음악적 감수성(M=4.01, SD=.897)’) 결과에는 상호 견해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4> 초·중학교 교사가 실현하고 있는 음악교과 역량

빈도(%)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기관리 역량	2(1.4)	21(15.0)	52(37.1)	52(37.1)	13(9.3)	140 (100.0)	3.38	.901
문화적 공동체 역량	-	9(6.4)	39(27.9)	67(47.9)	25(17.9)	140 (100.0)	3.77	.817
음악적 소통 역량	-	5(3.6)	36(25.7)	69(49.3)	30(21.4)	140 (100.0)	3.89	.778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	18(12.9)	62(44.3)	42(30.0)	18(12.9)	140 (100.0)	3.43	.874
음악정보처리 역량	-	19(13.6)	59(42.1)	50(35.7)	12(8.6)	140 (100.0)	3.39	.828
음악적 감성 역량	-	4(2.9)	37(26.4)	62(44.3)	37(26.4)	140 (100.0)	3.94	.803

음악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2 가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표 15>와 같다. 학생의 경우, 음악수업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다양한 음악체험활동(N=947, 33.3%)’,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악 수업(N=864, 30.4%)’,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하는 음악활동(N=293, 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은 교과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 개선 방안으로 다양하게 음악을 체험하고,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과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하는 음악활동으로 스스로 음향을 상상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음악수업 활동이 다양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표 15> 음악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초·중학생)

빈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악 수업	다양한 음악 체험 활동 제공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하는 음악활동 을 더 많이	지금보다 모든 활동을 더 많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분명하게 제시	음악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전체
149(5.2)	864(30.4)	947(33.3)	293(10.3)	213(7.5)	102(3.6)	277(9.7)	2,845 (100.0)

음악교과 수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3가지를 선택하는 설문 문항에 초·중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표 16>과 같다. 교사의 경우, 음악교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교과 수업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핵심역량 기반 다양한 교수·학습(23.8%)’, ‘역량중심의 교육내용 재구성(23.6%)’, ‘역량을 반영한 자료 제작 및 활용(2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서 음악교사들은 교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교수·학습방법 구현 및 자료 제작 및 활용하고, 교과 역량 기반 교육내용 재구성하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음악교사들의 역량 증진 수업에서 중점 및 개선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N=100, 23.8%) 및 역량중심의 교육내용 재구성(N=99, 23.6%) 그리고 역량을 반영한 자료 제작 및 활용(N=93, 22.1%)을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체험(N=947, 33.3%), 흥미로운 음악 수업(N=864, 30.4%),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하는 음악활동(N=293, 10.3%)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16> 음악교사가 역량 증진을 위해 수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
빈도(%)

역량을 명시한 수업 목표 제시	역량 중심의 내용 재구성	역량을 반영한 자료 제작 및 활용	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구현	역량에 기반한 평가 방법 다원화	수업 환경 개선	기타	전체
41(9.8)	99(23.6)	93(22.1)	100(23.8)	32(7.6)	50(11.9)	5(1.2)	420(100.0)

4) 음악 교과 지원 방안

음악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음악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응답한 비율이 조금씩 달랐다. 초·중학교 교사들의 응답에서 음악 교과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대학교수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음악 교과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 지원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과 수업 지원 방안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교과 역량별 교수·학습 자료 및 방법을 보급하고, 교과 역량 평가 방법 및 도구를 보급하고 교과 역량 수업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는 모든 수업 지원 방안에 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대부분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교과 역량별 교수·학습 자료 보급의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에 비해 대학교수들은 교수·학습 자료 보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에 교과 역량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보급 및 방법을 교사들에게 보다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과 역량 평가 방법 및 도구 보급에서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교과 역량 평가방법 및 도구 보급이 초등학교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과 역량 수업 사례 발굴 및 확산에서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교과 역량 수업 사례를 발굴하여 교사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원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과 역량에 기반 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연수’, ‘교과 역량에 기반 한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방안 연수’, ‘교과 역량에 기반 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모두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교과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연수’에 관하여 초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그리고 중학교 교사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평균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교수가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연수가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과 역량에 기반 한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방안 연수’에 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고, 전체 평균에서 중학교 교사들이 가장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교과 역량에 기반 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에 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교과 역량에 기반 한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를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역량 실현 인식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음악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은 음악 교과 전문가와 학생 모두 다른 역량에 비해 실현 정도를 낮게 보고 있는 음악정보처리 역량 증진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하여금 변화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 내외적 측면에서 시간·공간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수 사례 보급 확대를 통한 교과 역량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 논의

음악 교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수준의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음악과 교육과정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 교육 평가를 중심으로 실행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들이 중요시하는 ‘자기관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극, 음악회 포트폴리오 만들기, 다양한 악기 연주회 제작하기 등의 자발적인 음악학습을 계획하고 연주를 통한 무대경험과 자기 조절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사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음악지식의 전문성 지원이 시급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을 감소하고 학급당 주2회 이상 음악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 지원이 필요하다. 중학교에는 중학생들이 중요시하는 ‘음악적 감성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좋아하는 음악 추천하고 감상하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음악 감상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감상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의 감상과 표현을 통합한 활동으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 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5-6학년군)에는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음악 감성 역량 개발’이나 ‘음악적 소통 역량’이 더욱 실현되고 ‘음악정보처리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 음악 교사에게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구현’하고 ‘역량 중심의 내용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통합·융합학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및 학습도구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국어와 음악의 융합수업으로 음악동화 만들기과 같은 내용을 융합한 교수·학습 또는 서양음악사의 흐름에 따른 미술 건축양식의 공통점을 탐구할 수 있는 음악적 창의 융합 교수·학습 등의 사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중학교 교사들에게는 음악 교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업 내용 선정 및 구성 시 ‘역량에 기반을 두어 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 음악의 생활화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융합교육체제방안이 지원 되어야겠다

셋째, 전문가와 학생 모두 다른 역량에 비해 실현 정도를 낮게 보고 있는 음악 정보처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지식에 대한 정보

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 내외적 측면에서 시간·공간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수 사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간적 지원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하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악 수업에 참여하면서 음악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실 내외의 환경 지원이 시급한 것이다. 음악실내에서는 악기, 방음시설, 스피커, 무선마이크, 와이파이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학생과 교사의 시간과 음악실의 공간적 여유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인식은 음악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응답한 비율이 조금씩 달랐다.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음악수업시수 증가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음악과 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교과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 과정 안을 제시하고, 교과 역량별 교수·학습 자료와 방법을 보급하여 교과 역량 평가 방법 및 도구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과 역량별 교수·학습 자료 보급 및 사례발굴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에 비해 대학교수들은 교수·학습 자료 보급이 다소 필요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교과 역량 수업 사례 발굴 및 확산에서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각각 교과 역량 수업 사례를 발굴하여 교사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원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과 역량에 기반 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연수’, ‘교과 역량에 기반 한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방안 연수’, ‘교과 역량에 기반 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교과 역량에 기반 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에 관하여 초·중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각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을 고려하였을 때, 초등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 방안 연수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V. 요약 및 제언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룬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 기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연구·개발 과정을 통하여 확정·고시 되어 개정 교육과정이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또는 교실 수준에서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 교육 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수업 계획 시 교육과정의 방향 또는 목표와 연계하고 이를 구현하는 수업 제재 및 활동 선정과 수업과정 및 평가도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구체적인 역량 교육 방안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체제, 바람직한 교육과정 실행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교실 수준에서 교사가 국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역, 학교, 교실, 교사, 학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자 설문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수·학습을 실행한 후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제작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피드백 하는 일련의 실행 과정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길러져야 할 역량 교육과정 설계에 관련된 방향 설정으로 확장되었다.

초·중학교 교사와 교수 모두 음악 교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량에 기반한 교과 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및 실행 방안 연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률이 높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연주연습 초보자인 초등학교(5-6학년군) 학생의 경우, 가장 중요한 1순위 역량이 '자기관리 역량'이었으며 중학생의 경우, '음악적 감성 역량'을 가장 중요한 1순위 역량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음악적 자기조절 능력과 같은 자기관리 역량과 음악 감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음악 수업의 효과에 자기 동기 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 학생들 모두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음악 수업 속에서 음악정보처리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시설·교구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초·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음악 수업의 효과에 자기 동기 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학

습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역량 증진을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내용, 학습활동 및 평가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역량 중심 수업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연계된 소재를 활용하여 역량 수업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음악교과의 핵심적인 지식이 어떤 수업내용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연계된 소재를 활용하여 역량 수업의 효과를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교과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학습모형을 토대로 체험과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서 음악과의 교과 역량 적용뿐만 아니라, 범교과 내용 적용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역량 교육과정에서 범교과적 교과 역량은 교과의 본질과 특성 안에서 교과 차원, 지역 차원, 학교 차원으로 재구성되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교과적 역량은 학생 중심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협동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범교과 학습에서 음악 교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 차시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채로운 교수·학습방법의 구안과 적용이 필요하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역량 중심의 평가 방향에 알맞게 교사가 재량껏 평가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적합한 평가 기준 설정의 융통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평가에서도 교과 역량에 초점을 둔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세분화하여 과정 중심의 평가활동이 강화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교과 역량증진을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역량 학습 및 평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역량 중심의 연속적인 수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시수 운영과 물리적인 환경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량 실현에 가장 적절한 수업 주제 및 제재를 선정하고, 교과 역량에 초점을 둔 성취기준을 세분화한 과정 중심의 평가 도구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또한 다목적 복합 예술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공간 확보 및 교수·학습 환경의 지원이 이루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14. 08. 26.).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추진.
- 교육부 보도자료 (2014. 9. 2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총론 주요 사항(시안).
- 교육부 (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방향과 주요 사항**.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공청회 자료집.
- 교육부 (2015b).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 교육부 (2015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 [별책 1].
- 교육부 (2015d).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진 1차 합동 워크숍 자료집.
- 김민환 (1999). 교사의 교육과정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17(1), 219-247.
- 김위정 (2014). **경기도교육과정 핵심역량 체계 재정비 및 측정도구 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14-2.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4). **핵심역량을 키우는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자료집**. 대전 2014-131.
- 대전진잠초등학교 (2014). **핵심 성취 기준 활용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방안**. 연구 학교 운영 보고서.
- 민용성, 백경선, 한혜정, 곽상훈, 정치훈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1-3**.
- 박소영, 양윤정, 김정효, 박정유, 이주연, 임종삼, 손지현, 김은숙, 김선아, 조우호, 조은정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미술과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11**.
- 박순경, 김사훈, 김진숙, 백경선, 변희현, 안종욱, 양정실, 이광우, 이근호, 이미경, 이미숙, 이승미, 이해원, 정영근, 한혜정 (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1**.
- 박일수 (2013). 교육과정 재구성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과정연구**, 31(4), 141-164.
- 박정준 (2007). **네트형 경쟁활동 단위노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업 개발 자료.
- 박정준, 최의창 (2010). 반성적 마이크로티칭에 나타난 예비 체육교사의 실천적 지식 내용과 수준 분석. **체육과학연구**, 21(4), 1595-1614.

- 서경혜 (2009).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천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과정연구**, 27(3), 159-189.
- 서명식 (2011).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적 애매성과 모호성 비판. **교육과정연구**, 29(3), 75-91.
- 서지영, 김기철, 유창완, 박상봉, 홍석호, 장용규 (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체육.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24.
- 송주현 (2011).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음악교육연구**, 40(3), 215-249.
- 송주현 (2014).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주현 (2015). 역량 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음악교육연구**, 44(4), 117-146.
- 오지향, 정진원, 정은경 (2013). 음악 교과에서의 역량·인성교육 요인에 관한 교사 인식 FGI 연구. **예술교육연구**, 11-3, 83-106.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 - 핵심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7-1.
- 이경언 (2011).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핵심역량 논의의 방향. **음악교육공학**, 13, 1-16.
- 이경언 (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의 특징. 국가 교육과정포럼. 7월 1일. 한국교총 컨벤션홀: 141-174.
- 이경언, 장근주, 강연주, 권현정, 김충서, 노혜정, 변미혜, 이형환, 조순이, 천영주 (2015a)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19.
- 이경언, 장근주, 강연주, 권현정, 김충서, 노혜정, 변미혜, 이형환, 조순이, 천영주 (2015b)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10.
- 이경언, 진의남, 김기철, 채정현, 유정애, 김선아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14.
- 이경진, 최진영 (2007).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중단적 사례 연구: 학습과제 및 담화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5(3), 215-245.

- 이광우 (2009). **핵심역량 기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9-20.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11) - 핵심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1.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10-1.
- 이광우, 정영근, 서영진, 정창우, 최정순, 박문환, 이봉우, 진의남, 유정애, 이정언, 박소영, 주형미, 백남진, 온정덕, 이근호, 김사훈 (2014a). 교과 교육과정 개발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7.
-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김사훈, 백남진, 온정덕 (2014b).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2015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정책 포럼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4-61. 51-68.
- 이광우, 정영근, 이근호, 백경선, 온정덕, 소경희, 양일모, 김경숙, 이미숙, 김창원, 박병기, 모경환, 구정화, 진재관, 박경미, 곽영순, 진의남, 서지영, 이정언, 박소영, 임찬빈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 - 국가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2015-9.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4.
- 이근호, 김기철, 김사훈, 김현미, 이명진, 이상하, 이인제 (2013a). 미래 핵심역량 계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 :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2.
- 이근호, 이광우, 박지만, 박민정 (2013b).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3-17.
- 이상하, 박도영, 박상욱, 최인봉, 구남욱, 이은정 (2014).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평가 정책의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14-14.
- 이재분 (2014). 미래 융복합 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한 융합교육의 방향과 과제. 청람포럼 자료집.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정진원, 오지향 (2013). 역량중심 교육과정 사례 분석 및 음악교육에의 시사점: 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2(3), 489-505.

- 정진원, 오지향, 정은경 (2012). 미래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 교육과학기술부.
- 진의남, 박소영, 김기철, 장근주, 김현수 (2014a).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4-76.
- 진의남, 유창완, 장근주, 이영미, 박소영, 양윤정 (2015b).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방향 탐색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5-89.

ABSTRACT

**An Analysis of Perception of Implementing
the Competencies in Music Class based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Young-mi Lee · Gun-joo Ja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ll handle any issues that emerge while implementing national strategy projects. This survey focused on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instructional assessment for implementing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uccess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investigation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future society, of which expanding the studies to design a curriculum in music.

To this aim, this survey instruments investigate teaching-learning tool as a instructional aspect and assessment plans to implement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music. For the more, those plans need to determined what contents should be extended. The participants of this survey are students and teachers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of hundred. The questions are developed about what need for music class with enhancing the competencies. As a result of surve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way of how implement a teaching-learning tool as an instructional aspect and assessment plans the learning of music. So, this study have implication that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an effectively manipulated for the future study in improvement of actual music curriculum.

Key word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ompetencies in music class, teaching-learning methods, assessment plans

투고일: 2016년 2월 12일, 심사(수정): 4월 20일(4월 24일), 게재확정일: 5월 10일

[부록 1] 음악과 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정도(교사, 교수)

빈도(%)

구 분	전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초등 교사	5(6.3)	14(17.5)	22(27.5)	26(32.5)	13(16.3)	80(100.0)	3.35	1.137
중등 교사	5(9.6)	12(23.1)	22(42.3)	12(23.1)	1(1.9)	52(100.0)	2.85	.958
대학교수	0(0.0)	1(6.3)	1(6.3)	10(62.5)	4(25.0)	16(100.0)	4.06	.772
전체	10(6.8)	27(18.2)	45(30.4)	48(32.4)	18(12.2)	148(100.0)	3.25	1.100

[부록 2] 역량 기반 음악 교육의 필요성(교사, 교수)

빈도(%)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초등 교사	0(0.0)	1(1.3)	25(31.3)	39(48.8)	15(18.8)	80(100.0)	3.85	.731
중등 교사	0(0.0)	1(1.9)	18(34.6)	23(44.2)	10(19.2)	52(100.0)	3.81	.768
대학교수	0(0.0)	1(6.3)	4(25.0)	7(43.8)	4(25.0)	16(100.0)	3.88	.885
전체	0(0.0)	3(2.0)	47(31.8)	69(46.6)	29(19.6)	148(100.0)	3.84	.756

[부록 3] 음악 교과 역량의 중요도(교사, 교수)

빈도(%)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기 관리 역량	초등 교사	1(1.3)	5(6.3)	13(16.3)	40(50.0)	21(26.3)	80(100.0)	3.94 .891
	중등 교사	0(0.0)	1(1.9)	4(7.7)	28(53.8)	19(36.5)	52(100.0)	4.25 .682
	대학교수	0(0.0)	1(6.3)	4(25.0)	9(56.3)	2(12.5)	16(100.0)	3.75 .775
	전체	1(1.7)	7(4.7)	21(14.2)	77(52.0)	42(28.4)	148(100.0)	4.03 .824
문화 적 공동 체 역량	초등 교사	0(0.0)	1(1.3)	9(11.3)	34(42.5)	36(45.0)	80(100.0)	4.31 .722
	중등 교사	0(0.0)	0(0.0)	4(7.7)	24(46.2)	24(46.2)	52(100.0)	4.38 .631
	대학교수	0(0.0)	1(6.3)	3(18.8)	9(56.3)	3(18.8)	16(100.0)	3.88 .806
	전체	0(0.0)	2(1.4)	16(10.8)	67(45.3)	63(42.6)	148(100.0)	4.29 .712

구 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음악 적 소통 역량	초등 교사	0(0.0)	0(0.0)	4(5.0)	29(36.3)	47(58.8)	80(100.0)	4.54	.594
	중등 교사	0(0.0)	0(0.0)	2(3.8)	23(44.2)	27(51.9)	52(100.0)	4.48	.577
	대학교수	0(0.0)	1(6.3)	2(12.5)	5(31.3)	8(50.0)	16(100.0)	4.25	.931
	전체	0(0.0)	1(.7)	8(5.4)	57(38.5)	82(55.4)	148(100.0)	4.49	.633
음악 적 창의 · 융합 사고 역량	초등 교사	0(0.0)	1(1.3)	18(22.5)	29(36.3)	32(40.0)	80(100.0)	4.15	.813
	중등 교사	0(0.0)	0(0.0)	7(13.5)	21(40.4)	24(46.2)	52(100.0)	4.33	.706
	대학교수	1(6.3)	0(0.0)	0(0.0)	9(56.3)	6(37.5)	16(100.0)	4.19	.981
	전체	1(.7)	1(.7)	25(16.9)	59(39.9)	62(41.9)	148(100.0)	4.22	.796
음악 정보 처리 역량	초등 교사	0(0.0)	1(1.3)	23(28.8)	45(56.3)	11(13.8)	80(100.0)	3.83	.671
	중등 교사	0(0.0)	3(5.8)	7(13.5)	30(57.7)	12(23.1)	52(100.0)	3.98	.779
	대학교수	0(0.0)	1(6.3)	3(18.8)	5(31.3)	7(43.8)	16(100.0)	4.13	.957
	전체	0(0.0)	5(3.4)	33(22.3)	80(54.1)	30(20.3)	148(100.0)	3.91	.746
음악 적 감 성 역량	초등 교사	0(0.0)	0(0.0)	2(2.5)	26(32.5)	52(65.0)	80(100.0)	4.63	.537
	중등 교사	0(0.0)	0(0.0)	2(3.8)	17(32.7)	33(63.5)	52(100.0)	4.60	.569
	대학교수	1(6.3)	0(0.0)	0(0.0)	3(18.8)	12(75.0)	16(100.0)	4.56	1.031
	전체	1(.7)	0(0.0)	4(2.7)	46(31.1)	97(65.5)	148(100.0)	4.61	.613

[부록 4] 음악 교과 역량의 중요도(학생)

빈도(%)

구 분	자기관리	문화적 공동체	음악적 소통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음악 정보처리	음악적 감성	전체	χ^2
초등 학생	261(24.3)	100(13.1)	122(16.0)	81(10.6)	64(8.4)	134(17.6)	762 (100.0)	18.754** df=4
중학 생	184(26.1)	66(9.4)	131(18.6)	83(11.8)	47(6.7)	194(27.5)	705 (100.0)	
전체	445(30.3)	166(11.3)	253(17.2)	164(11.2)	111(7.6)	328(22.4)	1467 (100.0)	

* $P < .05$, ** $P < .01$

[부록 5] 현재 음악 수업에서의 음악 교과 역량 실현 정도(교사, 교수)-표준편차
빈도(%)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자기 관리 역량	초등 교사	2(2.5)	10(12.5)	29(36.3)	31(38.8)	8(10.0)	80(100.0)	3.41	.924
	중등 교사	0(0.0)	7(13.5)	20(38.5)	20(38.5)	5(9.6)	52(100.0)	3.44	.850
	대학교수	0(0.0)	7(43.8)	6(37.5)	3(18.8)	0(0.0)	16(100.0)	2.75	.775
	전체	2(1.4)	24(16.2)	55(37.2)	54(36.5)	13(8.8)	148 (100.0)	3.35	.902
문화 적 공동 체 역량	초등 교사	0(0.0)	3(3.8)	17(21.3)	42(52.5)	18(22.5)	80(100.0)	3.94	.769
	중등 교사	0(0.0)	5(9.6)	17(32.7)	23(44.2)	7(13.5)	52(100.0)	3.62	.844
	대학교수	0(0.0)	1(6.3)	9(56.3)	5(31.3)	1(6.3)	16(100.0)	3.38	.719
	전체	0(0.0)	9(6.1)	43(29.1)	70(47.3)	26(17.6)	148 (100.0)	3.76	.811
음악 적 소통 역량	초등 교사	0(0.0)	2(2.5)	18(22.5)	39(48.8)	21(26.3)	80(100.0)	3.99	.771
	중등 교사	0(0.0)	3(5.8)	13(25.0)	27(51.9)	9(17.3)	52(100.0)	3.81	.793
	대학교수	0(0.0)	1(6.3)	8(50.0)	6(37.5)	1(6.3)	16(100.0)	3.44	.727
	전체	0(0.0)	6(4.1)	39(26.4)	72(48.6)	31(20.9)	148 (100.0)	3.86	.788
음악 적 창의· 융 합 사고 역량	초등 교사	0(0.0)	7(8.8)	34(42.5)	27(33.8)	12(15.0)	80(100.0)	3.55	.855
	중등 교사	0(0.0)	8(15.4)	24(46.2)	14(26.9)	6(11.5)	52(100.0)	3.35	.883
	대학교수	0(0.0)	3(18.8)	7(43.8)	4(25.0)	2(12.5)	16(100.0)	3.31	.946
	전체	0(0.0)	18(12.2)	65(43.9)	45(30.4)	20(13.5)	148 (100.0)	3.45	.875
음악 정보 처리 역량	초등 교사	0(0.0)	8(10.0)	31(38.8)	32(40.0)	9(11.3)	80(100.0)	3.53	.826
	중등 교사	0(0.0)	8(15.4)	23(44.2)	18(34.6)	3(5.8)	52(100.0)	3.31	.805
	대학교수	0(0.0)	3(18.8)	10(62.5)	1(6.3)	2(12.5)	16(100.0)	3.13	.885
	전체	0(0.0)	19(12.8)	64(43.2)	51(34.5)	14(9.5)	148 (100.0)	3.41	.832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음악 적 감성 역량	초등 교사	0(0.0)	1(1.3)	16(20.0)	38(47.5)	25(31.3)	80(100.0)	4.09	.750
	중등 교사	0(0.0)	3(5.8)	15(28.8)	22(42.3)	12(23.1)	52(100.0)	3.83	.857
	대학교수	0(0.0)	0(0.0)	7(43.8)	8(50.0)	1(6.3)	16(100.0)	3.63	.619
	전체	0(0.0)	4(2.7)	38(25.7)	68(45.9)	38(25.7)	148 (100.0)	3.95	.789

[부록 6] 현재 음악 수업에서의 음악 교과 역량 실현 정도(교사, 교수)-카이 값

빈도(%)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χ^2
초등 교사	19(23.8%)	22(27.5%)	39(48.8%)	80(100.0%)	20.638**, df=4
중등 교사	17(32.7%)	22(42.3%)	13(25.0%)	52(100.0%)	
대학교수	1(6.3%)	1(6.3%)	14(87.5%)	16(100.0%)	
전체	37(25.0%)	45(30.4%)	66(44.6%)	148(100.0%)	

* $P < .05$, ** $P < .01$

[부록 7] 현재 음악 수업에서 ‘자기관리 역량’과 ‘문화적 공동체 역량’ 교과 역량 실현
정도(교사, 교수)

빈도(%)

구 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평균	χ^2
자기 관리 역량	초등 교사	12(15.0%)	29(36.3%)	39(48.8%)	80(100.0%)	3.41	9.875*, df=4
	중등 교사	7(13.5%)	20(38.5%)	25(48.1%)	52(100.0%)	3.44	
	대학교수	7(43.8%)	6(37.5%)	3(18.8%)	16(100.0%)	2.75	
	전체	26(17.6%)	55(37.2%)	67(45.3%)	148(100.0%)	3.35	
문화 적 공동 체 역량	초등 교사	3(3.8%)	17(21.3%)	60(75.0%)	80(100.0%)	3.94	11297*, df=4
	중등 교사	5(9.6%)	17(32.7%)	30(57.7%)	52(100.0%)	3.62	
	대학교수	1(6.3%)	9(56.3%)	6(37.5%)	16(100.0%)	3.38	
	전체	9(6.1%)	43(29.1%)	96(64.9%)	148(100.0%)	3.76	

* $P < .05$, ** $P < .01$

[부록 8] 현재 음악 수업에서의 교과 역량 실현 정도(학생)

빈도(%)

구 분		전혀 길러지지 않는다	잘 길러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잘 길러진다	매우 잘 길러진다	전체	평균	χ^2
자기 관리 역량	초등 학생	2(3)	19(2.5)	165(21.4)	350(45.5)	234(30.4)	770(100.0)	4.03	10.536*, df=4
	중학생	5(7)	26(3.7)	207(29.6)	307(43.9)	155(22.1)	700(100.0)	3.82	
	전체	7(0.5)	45(3.0)	372 (25.5)	657 (44.6)	389 (26.4)	1,470 (100.0)	3.93	
문화 적 공동 체 역량	초등 학생	2(3)	29(3.8)	178(23.1)	332(43.2)	228(29.6)	769(100.0)	3.98	8.063*, df=4
	중학생	3(4)	35(5.0)	187(26.7)	309(44.1)	166(23.7)	700(100.0)	3.86	
	전체	5(0.3)	64(4.3)	365 (24.9)	641 (43.6)	394 (26.8)	1,469 (100.0)	3.92	
음악 적 소통 역량	초등 학생	3(4)	38(4.9)	210(27.3)	298(38.8)	220(28.6)	769(100.0)	3.90	8.814*, df=4
	중학생	8(1.1)	35(5.0)	198(28.3)	283(40.4)	176(25.1)	700(100.0)	3.83	
	전체	11(0.7)	73(4.9)	408 (27.9)	581 (39.6)	396 (26.8)	1,469 (100.0)	3.87	
음악 적 창의 · 융합 사고 역량	초등 학생	5(.7)	36(4.7)	215(28.0)	296(38.6)	215(28.0)	767(100.0)	3.89	3.122*, df=4
	중학생	4(.6)	36(5.2)	207(29.6)	290(41.5)	162(23.2)	699(100.0)	3.82	
	전체	9(0.6)	72(4.9)	422 (28.7)	586 (40.1)	377 (25.7)	1,466 (100.0)	3.85	
음악 정보 처리 역량	초등 학생	7(.9)	46(6.0)	241(31.4)	280(36.5)	194(25.3)	768(100.0)	3.79	8.935*, df=4
	중학생	3(.4)	42(6.0)	201(28.8)	284(40.6)	169(24.2)	700(100.0)	3.82	
	전체	10(0.7)	88(6.0)	442 (30.2)	564 (38.4)	363 (24.7)	1,468 (100.0)	3.81	
음악 적 감성 역량	초등 학생	7(.9)	33(4.3)	164(21.4)	285(37.2)	277(36.2)	766(100.0)	4.03	8.935*, df=4
	중학생	6(.9)	31(4.4)	148(21.1)	298(42.6)	217(31.0)	700(100.0)	3.98	
	전체	13(0.9)	64(4.3)	312 (21.4)	583 (39.7)	494 (33.7)	1,466 (100.0)	4.01	

* $P<.05$, ** $P<.01$